

스웨덴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의 시계열적 차이 : 2001~2010년 10년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홍 서 정(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학과 박사과정)
최 정 신(가톨릭대학교 소비자 주거학 전공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스웨덴의 노인용 코하우징의 이주동기를 밝혀보고 과거 10년간에 걸쳐 시계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코하우징에 대한 인식과 기대에 대한 10년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스웨덴 민영주택인 시니어고든(Senior garden)에서 설립한 노인용 코하우징 8개 단지, 그리고 스웨덴 코하우징 공식홈페이지인 콜렉티브후스누(Kollektivhus Nu, Cohousing Now)에 2010년 현재 등록된 +40 코하우징 4개 단지로, 총 12개 단지의 주민들이다. 연구 방법은 사회조사법인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교차분석, 피어슨의 카이제곱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의 시계열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10년간의 차이를 두고 2001년과 2010년에 동일한 내용의 설문지로 조사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407부를 배부하여 313부(77.0%)가 회수되었고 이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성별은 여성이 약 2/3를 차지하였고 연령은 70대 이상이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대학졸업자가 가장 많았고 직업은 전문직과 교육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의 10년간 변화를 보면 노인용 코하우징의 주민 중 독신가구가 많이 증가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민의 연령이 70대 이상으로 높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 시계열적으로 차이 있는 이주동기를 살펴보면 주택과 정원관리의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의 주택을 찾아서의 2개 항목은 2001년도 표본보다 2010년도 표본에서 중요도가 감소한 반면, 좋은 이웃관계, 주민 간 상호협조, 공동활동 참여, 고독감 해소의 4개 항목은 중요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10년에 걸쳐 물리적 환경보다 사회적 교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코하우징의 주 목적인 사회적 교류의 기능이 주민들에게 잘 인식되고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스웨덴 코하우징 협회(Kollektivhus Nu)나 스웨덴 공영주택회사조합인 SABO가 노후세대의 주거대안으로 코하우징을 보급하기 위하여 꾸준한 홍보와 노력을 한 효과로 판단된다. 그 동안 스웨덴 노후세대가 보여준 노인용 코하우징의 운영 의지와 노력, 그리고 지방정부의 협조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